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8호 【루계 제2300호】주제 99 (2010)년 2월 17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 국제자선단체련맹 《선의의 세계》에서 훈장을 수여해드리기로 결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국제자선단체련맹 《선의의 세계》에서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 훈장을 수여해드리기로 결정하였다.

수호자》 훈장을 수여해드리기로 결정하는데 대한 편지를 12월 21일 오. 웨. 올레인니크 로씨야 국제자선단체련맹 《선의의 세계》 총재가 김정일 로씨야국제 우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이탈리아 통일공산당이 5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메히꼬로동당출판사에서 1월 29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반생일인 2월 16일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출판사는 그의 고전적로작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출판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1월 25일 프랑스 반계전선소속 데모프라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본사기자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

가장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저희들은 당신께서 전세계적인 창조와 자유, 사회적정의의 운동과 원칙들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로씨야사회의 이름으로 송고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주석이신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의 훌륭한 계승자이신 당신께서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발전봉부하시키시었으며 광명한 미래로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전진운동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주는 선군정치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고계십니다.

당신께서 조선인민의 복리와 번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고 강성대국건설전략을 제시하신것으로 하여 당신의 존함은 인류의 탁월한 활동가의 영광스러운 존함으로 빛나고있습니다.

국제자선단체련맹 《선의의 세계》는 2010년 2월 11일 결정에 따라 당신께 가장

금문자로 모시였으며 로씨야국립도서관과 로씨야의 지역과 도시들의 모든 큰 도서관들에 배모된 귀중한 도서인 《황금의 제민혁명에 등 록장》에 정중히 모신것을 금지로 간주하고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저희들은 당신께서 무한한 정력을 지니시고 조선민족과 전세계공동체의 복리를 위한 역사적인 활동에서 영광스럽고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씨야 국제자선단체련맹
《선의의 세계》 총재
오. 웨. 올레인니크
2010년 2월 12일 모스크바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 활발

평양시안의 당조직들에서

평양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고조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시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양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산업과 기상을 올 세상에 떨치고 계시는 데 대한 내용을 가지

고 강연과 해설당화, 영화감상 발표회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선군령도를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공동사실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제산악강행군으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 데 대한 편집물들을 만들어 아베당조직들에 내려 보내주어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실감있게 벌리게 하고있다.

대동강구역당위원회와 평천구역당위원회가 위대성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잘하고있다.

대동강구역당위원회에서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하여 강사들의 해설강연을 조직한 다음 그들이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나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해주고 있다.

평천구역당위원회에서는 령도업적단위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데 대하여 깊이 체득하게 하고있다.

경사로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상강기공

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화학공장 등 비록한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든 만경대구역 만경대농장과 사동구역 리현협동농장, 형제산구역 학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농업부문 근로자들은 올해에 기이 알곡생산량을 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굳은 결의를 안고 당면한 농사차비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 단위들에 내려간 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당면한 농사차비에 계속 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 있다.

특파기자 최재남

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2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엄격점검과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전력생산을 다그치고있다.

3호발전소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 에 큰 힘을 넣어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해내고있으며 4호발전소의 생산자들은 역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전력증산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첨단들과의 열풍

◇ 지금 온 나라에는 《들과라 최첨단을》의 노래가 위대한 대고조시대의 전군가마냥 힘있게 울려 퍼지고있다.

애국으로 심장이 불타면 정령 못할 첨단은 없어야
선군으로 백배해진 힘으로 모든것에 패권을 쥐자

《런히가게》 개발자들이 CNC기술의 보다 높은 세계를 향하여 기세드높이 전진하고 흥남과 대안, 덕천과 기양을 비롯한 온 나라의 로동계급이 경쟁적으로 현대화의 불길을 높이 하고있다. 어찌 그뿐이랴. 과학자, 기술자들과 청년대학생들이 탐구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CNC》라는 말이 대고조시대의 상징어로 되고 첨단들과가 전체 인민의 리상으로, 투쟁기풍으로 되고있는것이 바로 오늘 우리 조국의 거창한 현실이다.

◇ 첨단기술의 개척자가 미래의 정복자이며 승리자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 용감성이 결합되면 이 세상에 둘과 못할 첨단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그 무엇이냐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낼수 있다는 조선사람의 자신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첨단을 향하여 용감무쌍히 돌진하여야 한다. 누구나 새롭고 발전적인것을 불 향하여 피라게 사색하고 탐구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이악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중요공장, 기업소들이 CNC화를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켜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첨단들과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뜻깊은 올해에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최첨단 사면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로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에도 2.8비료련합기업소와 강계편지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3대혁명소조사업들을 친히 료해하시고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크게 평가해주셨을뿐 아니라 전국각지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과학과 기술로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높이 받들고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첨단들과 파견의 기수가 될 한마음을 안고 해당 단위들에서 실리있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적지 않게 해결하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단위의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초고전력전기로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일부 부분들의 수명을 수십배로 보수수거는 6개월이상 늘이고 많은 전력을 절약할수 있게 하

였으며 쇠물남비의 노즐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쇠물실수율을 1.2% 더 높였다.

또한 산소직접의 압축기를 개조하여 증전보다 산소순도도 더 높여 기업소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보수수거를 6개월이상 늘였으며 증류연소물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개발도입하여 많은 증류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3대혁명소조원들은 자동도조절장치제작, 경질합금공구강의 단절방법을 비롯한 2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도록 하였다.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자들과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촉매의 재생리용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증전에 비해 원가를 훨씬 낮추어 국가에 많은 리득을 주었다. 또한 자체설정에 맞게 컴퓨터와 결합된 비누자동차공기기를 훌륭히 제작도입하였을뿐 아니라 기업소경영관리의 컴퓨터화를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에만도 1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수행하여 공장의 현대화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평양방직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단위의 기술자

들과 함께 생산정상화에서 제기되는 기술문제들을 적지 않게 풀어나갔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로품들을 우리의것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기술적특성이 좋고 수명이 긴 여러 부분품들을 만들어 생산에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직포공들의 바쁜 손길을 덜어주게 되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다른데서 가져다 쓰던 한 부분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가동하지 못하던 편조기 여러대와 어느 한 직장의 피대생산공정의 수자식자동도조절장치를 설치해 맞게 개조리용한것을 비롯하여 최근에만도 16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수행하여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당창건 65년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를 커다란 흥분속에 받아안은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첨단들과 전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첨단들과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최시홍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남흥가스화대사공사가 완공되었다

본사기자 장철일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각하

나는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레바논인민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면서 당신께서 행복하시고 성과물 거두실것과 아울러 조선인민에게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미셸 슐레이만
2010년 2월 1일 하이루트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원수 각하

각하 나는 파키스탄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경사스러운 귀하의 탄생일에 축원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아씨프 알리 자르다리
2010년 2월 4일 이슬라마바드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나는 친애하는 동지이신 귀하께 탄생일에 즈음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중대한 기념일을 맞으시는 귀하께서 건강하십시오와 아울러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위업을 더 높은 단계로 령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대리
조이스티. 아르. 무주르
2010년 1월 28일 하라레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각하께

친애하는 동지 나는 네팔공산당 (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와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탄생을 경축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연합성이 싸우고있는 조선인민의 헌신과 열정을 돌이켜보면서 당신께 경의와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의 정력적인 선군혁명에 자기의 조국과 사회주의혁명의 전위들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기백은 높이 찬양할만 한것입니다.

우리 당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나아가서 전세계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선의 평화적 통일에 지지를 보냅니다.

네팔공산당 (통일된 맑스-레닌주의) 과 조선로동당사이의 현존하는 친선관계가 영원히 계속될것이라는것을 확인하면서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와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에게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형제적인사를 드립니다.
네팔공산당 (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잘라나트 카날
2010년 2월 5일 까뜨만두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
존경하는 동지 저는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의 전체 당원들과 저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당신께서 백두산에서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확고한 완성을 기약하는 대사면, 대경사였습니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
알베르도 아나야 구띠에레스
2010년 2월 5일 메히꼬시

평양 조선인민의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저는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저 자신의 이름으로 탄생일을 맞으시는 당신께 축하를 드립니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게. 아. 유가노브
2010년 2월 11일 모스크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2.16경축 재일조선인에술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5일 평양대극장에서 흥련 금강산가극단 단장인 리봉수를 단장으로 하는 2.16 경축 재일조선인에술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김영남 위원장 (가운데)이 재일조선인 예술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스프르비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베오그라드 스프르비아공화국 대통령 보리스 따디츠각하 나는 스프르비아공화국 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안정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2월 15일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신천군 우산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보에 실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생동한 자료들을 가지고 독보와 해설담화, 연구발표모임 등을 현실과 결부하여 다

우리에 울려 퍼지는 백두광명성찬가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이할 때면 누구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어머니수령님께서 수순하시어 《광명성찬가》를 마음속으로 읊으며 가슴을 뜨겁게 적시곤 한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 있고 소백수 푸른 들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현존인가 문무총총 경비하니 모두다 우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이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들다

볼멸의 위인찬가를 심장에 새길수록 충시를 지으신 어머니수령님께서 자신께서 한평생 혁명을 하여오지만 오늘처럼 보람을 느끼본적이 없다고 하시며 그것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확신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던 말씀이 귀전에 정경히 들려오는듯싶다.

《평양 2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은 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음악회 동경양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주체예술의 발전면모를 힘있게 과시하고있는 은하수관현악단은 설명절음악회에 시대정신이 내재하고 민족적향취가 넘치는 사상에 충실한 종 목들을 올려 새해 정초부터는 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천만군민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16일 국가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시내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측화단들과 동포들, 반체민주진전선 평양지부 대표,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사들과 국제기구 대표들, 외국순님들이 공연을 보았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은 설화와 음악 《송년의 밤이여》, 혼성4중창과 합창 《공적전이다》, 설화와 음악 《돌하라라 최철단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강성대국이 보인다》 등의 종 목들을 감성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혁명 열렬히 칭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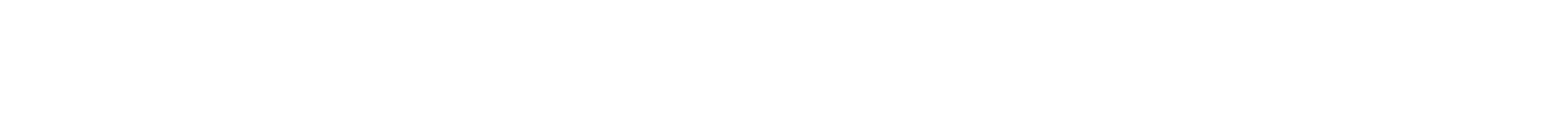
관람자들은 혁명적기백이 약동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퍼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화를 추켜들고 강성대국의 명마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온 자랑스런 로동자를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다.

여성6중창 《양산도》, 남성독창 《꽃노래》, 《아름다운 고향》, 《발걸이노래》, 색스폰6중

주 《김치각두기노래》를 비롯 《백두산은 혁명의 고향》 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초강대강행군으로 강성대국건설에 특기할 대변력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은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음악회 진행

시며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승리에 대한 신심과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볼멸의 명도업적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은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음악회 공연 모습

선군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하자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진행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가 16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태권도전당 대회장에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선군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와 감사의 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사상만세!》,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만세!》,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등의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경축 2.16.》, 《출성동》, 《효자동》이라는 글발을 드려온 기구들이 떠있었다.

대회에는 각 도소년단대표들과 평양시내 소년단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정일교육상, 당, 청년동맹 일군들, 전쟁로병들, 공로자들 이외에 초대되었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땀방울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우리 민족의 대통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혁명의 2월이 있어 우리 혁명은 선군의 기치높이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전진하여올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백두의 기상과 정기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린시절에 벌써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인민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었으며 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연

학생들에게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도록 하시고 소년단조직을 튼튼히 꾸리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는 아버지장군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위인적포모를 완벽하게 갖추어 오신 위대한 성자의 나날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소년단원들은 선군혁명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역세게 자라나고있으며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 전체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었다.

보고자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소년단조직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선군혁명업무를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 혁명의 후비대로 역세게 자라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 입단식이 있었다.

조선소년단기의 입장과 함께 소년단에

입단한 학생들이 대회장에 들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일동지의 선상에 따라 그들은 소년단기앞에서 선서를 하였다.

간부들과 전쟁로병들, 공로자들이 입단하는 학생들에게 높은백라이를 매어주고 소년단 휘장을 달아주었다.

조선소년단원의 영예를 지닌 학생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는 구호에 《항상준비!》라고 힘차게 화답하며 소년단원의 첫인사를 하였다.

전쟁로병 신효송,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박사 박지민, 인민체육인 사육신이 축하발언을 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2월의 명절에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모두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을 간직하고 선군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할것을 당부하였다.

대회는 《김정일 장군님 위하여 항상준비!》노래합창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본사기자 김 광혁 찍음

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발양시켜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변이 난 지난해에 주체철생산계획을 완성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대단축을 드리고 온 나라를 환희로 들뜨게 한 성진의 로동계급이 올해의 총공세에서도 혁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기업소의 어느 일터에서나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불굴의 신념이 맥박치고 선군시대의 새 기준, 새 기록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이것은 주체철생산계획을 완성한 성과에 토대하여 강철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대중정치를 적극 실시시키려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가 안아온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여러날 시기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구조를 뚫어내어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열어놓은것처럼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대조력사를 창조해나가야 합니다.》

이곳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라나고 강철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로동계급의 순결한 관심과 의리의 힘이 강철증산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총폭발되도록 한것이다.

어느날 저녁이었다. 기업소의 강철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5월 17일 공장에 나갔다가 밤이 이슬하여 사무실에 들어온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전봉국동무는 류달리 흥분되어 있었다. 당위원회의 한 일군이 방금 들어와 달려온 하나의 사실자료를 그 무엇에 대비할수 없이 값지게 여겨주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공무직장의 한 로동자가 산소용량의 정상적인 가운데에 이비지할 새로운 기술적창상을 한 자료였다.

기술자들을 깜짝 놀래운 요란한 착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낮은 높이로 발전되는 기업소로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의 일면이 비쳐있었다.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장군님의 기업소에 대한 현지

지도는 성상로동계급에게 커다란 격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그날 기업소를 또다시 찾으면서 주체철생산공정들과 정면에서 직결하는 사항과 문제를 찾아내어는 평정을 무소보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성진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주체철에 의한 제강을 완성한것은 야금공업 발전에 특기할 력사적인 사변이며 3차혁명시절공로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특별감사를 주시었다. 그리고 산소용량과 정련도에 영예의 《김정일장군》을 수여하도록 하시고 주체철연구에 참가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친히 평양에 초청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그 사랑에 떠받들려 수도 평양에 올라가 최상층의 대우를 받고 돌아온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순결한 관심과 의리의 힘이 총폭발시켜 그들과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이곳 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평가할만 하다.

본사기자 리정수

청남탄광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집한 안주지구 탄광련합기업소 청남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뜻깊은 2월에 들어와 탄광의 석탄생산실적은 대단히 높다.

비결은 사상발동의 목표를 찾아내고 탄부들의 심장을 달구는 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한데 있다.

탄광에서는 높이 이룩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정치사업의 원칙적요구입니다.》

탄광에서는 높이 이룩한 석탄생산계획수행을 위해 년초부터 중대호상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였다.

경쟁바람이 세차게 일던 어느날 초급당 비서 김일동동무는 사회주의 돌격대원비서 석탄생산실적을 로해하면서 정치사업을 주목되는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었다. 내용인즉 자기 교대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고 다음교대의 석탄운반작업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있는데 그에 대한 사회주의경쟁총화점수는 고려되지 못하고있었던것이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경쟁조직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그 미풍을 더 충실히 하였다.

이렇게 되어 초급당위원회는 혁신적인 힘찬사회주의경쟁을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사회주의경쟁관정요강에 맡겨진 석탄생산실적과 함께 다음교대를 도와준 내용에 대한 평가제책을 더 보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교대를 위하여 좋은 일용재기 위해 애쓰는 탄부들의 소행을 소개하는 직관선동공세도 집중적으로 벌리게 하였다. 경관직에 정치사업의 화력이 집중되었다.

제한2중대와 4중대에 들어간 초급당일군들은 탄부들에게 선군령도에서 단단한 탄전을 찾으면서 언제나 석탄생산으로 당을 받들어안주의 탄부들을 지난 기간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지조를 석탄을 제철을 비대한 인민정권 여러 부문에 제때에 보내주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대한 고경신, 심화시킬수록 좋다.

본사기자 최일호

당의 령도따라 백승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갈 신념과 의지

정신력발동은 비약의 지름길

안악군 오국리당위원회에서

공동사업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안악군 오국리동농에서는 모든 날에 지만해보다 2배의 기록을 낼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자면 적어도 2월 중순전까지 농장기름생산량의 70%를 남발에 내야 하였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정초에 기름생산을 부추일내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었다. 하지만 《효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모대기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상이 발동되면 모든것이 풀릴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열매가 쏟아져나오고 양이 많아질수 있습니다.》

리당비서 리동일동무의 머리에 지만해 때 12작업반에 내려졌을 때 한 초급일군이 기름생산과 관련한 이야기 화에 오르자 기름생산량을 확보하는것과 함께 노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계 대상적 집중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것 같다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공리를 좀더 무르익히기로 한 리당일군은 협의회를 잠시 중단하였다.

그는 일군들에게 한가지의 좋은 방도를 찾은 다음에 협의회를 계속하는 말을 남기고 제 2작업반에 내려가 그때 만났던 초급일군과 다시 마주앉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서강과 구황개천, 최춘천에서 썩은 흙과나무를 통이 크게 진행하면 1만톤의 질풍은 기름을 어렵지 않게 생산할수 있다는 것이었다.

리당일군은 그걸로 실농군으로 불리우고있는 여러 농

장원들을 더 만나보기로 하였다. 수십년간 땅을 직접스럽게 갈면서 쌀로써 땅을 여색게 받드는데 크게 공헌한 작민들 그들에게서 기름 생산을 늘일 좋은 안들이 나올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의 결심은 옳았다. 농장원들을 만날수록 책상머리에서 쓰는 생각할수 없었던 좋은 안들이 쏟아져나왔다.

그들의 말대로 논밭에 썩은 흙을 퍼주면 부추이는 각종 미량원소를 보충해주고 땅의 지력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었다. 역시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은 땅을 다루는 농장원들이었고 그들의 창조적 지혜는 무궁무진하였다.

지만해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짧은 기간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정신력발동은 비약의 지름길이다.

이러한 확고한 판정밑에 리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떠밀려나서도록 하였다.

판정위원장 황윤남동무는 농장에서 오래동안 일하다가 내려보장을 받고있는 로인들속에 들어가 질풍을 기름을 생산하기 위한 방도를 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해해결의 열쇠는 첫째 여기고 눈길을 덜 돌리는 곳에서도 끈정을 찾아낼수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20리구간의 하수도만 잘 정리하여도 그리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집체적지혜를 합쳐간다. -평양일용품공장에서- 최충성 찍음

지난 12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원산유리병공장에 불꽃의 자욱을 남기신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나온 365일에 비하면 그 하루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하루와 더불어 공장종업원들은 한일토록 잊지 못할 만한 귀중한 추억과 철석의 맹세를 새겨안았다. 우리 여기에 그날의 이야기를 펼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수명, 자기 지도자를 진심으로 모시고 받들어나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날 아침은 빨리도 밝았다. 너나없이 출근길을 다그쳤지만 벌써 많은 종업원들이 나와있었다. 작업장을 거두고 설비들을 닦아내는 일순마다면 바람이 일 지경이었다. 지나온 365일 어느 하루 잊은적 있었으랴.

사상사업에서의 계기와 실효성

원산유리병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1년전 그날 소문도 없던 공장을 찾으면서 자기들의 작업모습도 보여주며 고인의 시기에든 생산을 멈춘적 없는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인자하신 그이의 모습, 그이의 음성 잊은적 없었지만 같지는 못했다. 그 마음 한결같이 여느때없이 다그쳐진 줄근같이 빨리된 아침이라였다. 그날 아침 종업원들은 공장주내에 모여섰다.

뜨겁게 울리는 지체인 박원근동무의 이야기와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추억의 뜻을 담아주었다.

《이 자리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그마한 지방공업공장이 국가에서 크게 도와준것도 없는 데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수

행하였다고, 자력경쟁하는 공장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었습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하고 로동자라면 재능을 많이 생산하는것이 옹당한 본분을 우리가 한 일이 무슨 큰것이겠습니까.》

지배인의 눈가에 뜨거울것이 반짝였다. 종업원들도 같았다. 사실이 그랬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치하의 말씀을 전해들던 1년전 그날 종업원들은 옹당 할 일을 한 자들을 크게 내세워 주신 장군님의 믿음에 목매어 호느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답하리라 맹세하였다. 지난 1년은 그 맹세를 실천하기 위한 결사의 나날이었다. 제방벽과 수평성태에 있던 용해로를 수직으로 올려세워야 했던 나날들과

보장해나가고있다.

그 앞장에는 언제나 공장의 일군들이 서있다. 대중의 앞장에서 앞채를 메고 혁신신동의 불꽃을 높이 올리는 그들의 힘은 정치사업은 생산론과, 생활문화사업에 펼쳐나선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장밖을 공원과 같이, 공장안을 궁전과 같이 꾸려나가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양양된 열의속에 지금 공장에서 한층같이 달린 목표량을 비롯한 편의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아 주신 연혁소개실관과 그이께서 들리시었던 필수품직장의 용해로현장에서 진행된 현직합숙학습과 결의도입...

해결된 공중속보판에는 이런 글들이 나붙었다.

《잊지 말자, 범치 말자.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그날계획을 넘쳐 수행한 혁신의 새 소식에 띄어진 글발을 바라보면 종업원들은 다시 한번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여기에 참된 삶의 가치가 있다는것을, 광범한 대중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직한 혁명가로 더우 역세게 키우기 위한 사상사업에서 공과 계기의 적극적이며 실효성은 리용, 그것으로 분출되는 대중의 정신력은 참으로 끈기있게였다.

본사기자 림현숙

서사시

수령복넘치는 위대한 나라

김일선

1

내 나라는 그 어디 가나
인민의 이름으로 불려온다

나라의 국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도 인민정권
군대도 인민군대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도
인민의 이름 그앞에 놓은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인민병원...

인민!
그 이름 언제부터
나라의 주인
시대의 주인
만민의 주인이 되었던가

오랜 세월
시대와 망국으로 수난왔던 이 땅에
눈물과 가난의 대명사였던 그 부름
그 언제부터
이 세상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정의와 진리의 이름이 되었던가

인민!
다시 불러본다
그러면 인민-위대한 그 두글자속에
태양처럼 솟아오르는 우리
수령님 모습

비운이 드리운
술은 식민지 땅의 아들로 탄생
하시어

암흑속에 꺼져가던 가슴들에
인민의 운명을 밝히는
주제사상의 등불을 켜주신 수령님

백두의 설한봉을 헤치시며
나라를 찾아주신 그때부터
비로소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
시대의 주인으로 새삼을 받아
안지 않았던가

인민의 세상을 열고
인민을 잘 살게 하는것이 사회주의
이기에

사회주의자가 되었다고 하시며
자기 땅에서 농사지어보고싶은
인민의 속마음 다 풀어주시고
세상에 부럼없는 락원을 펼쳐주시며
초행길이며 걸으신 눈바람속 그
몇천몇만리

인민위해 바치신
수령님의 천만고생 잊을수 없애려
민러우에 인민을 일으켜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신
수령님의 그 사랑

전쟁을 이긴 승리한 땅이건만
민러우에 제가루만 날리던
정권전 그 이틀날
수령님 찾으셨던 강남요업공장

보이는것은
폐허와 폭탄구멍이
밝히는것은
꺼져진 벽들과 파편조각들
그 아픔을 밝으시며 우리 수령님
수령님만 바라보는 인민을 향해
말씀하시었어라
-어기에 환히 불을 밝히시다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일하시다

그날 밤
강남의 로동계급은
공장의 여기저기에 아이들을 걸었다
밤을 밀어내며 어둠을 배어던지는
그 불빛따라
은 나라가 일어섰다

백년이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떠벌이던
온갖 쓰레기들을 쏘어버리며
어기영-치기영
어기영-치기영
북구건설의 합성이 하늘땅을 뒤
흔들었다

자력갱생, 그 길만이
다시는 인민이 노예가 되지 않는
길기에
다시는 인민의 행복이
침략에 밝히지 않는 길이에

전쟁에서 승리한 인민을
떠다시
북구건설의 승리자로 이끄신
위대한 건설자
인민의 아버지
우리 수령님

수령님의 의지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를 일떠세우시려는
락관의 정수를 심장마다 지니고
그 나날의 수령님과 인민은 하나가
되었다

메아리쳐온다
메아리쳐온다
국가의 중대사도 다른 누구도 아닌
평범한 로동자들을 찾아 의논하시던
그 나날의 수령님 모습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수령님의 부름에
결사관철로 화합한 인민의 대답
은 하나
-수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승리
합니다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제 힘으로!

수령의 믿음
인민의 맹세
그 위대한 세계속에서
무에서 유를 낳는 천리마시대가
펼쳐졌거니

우리의 첫 트랙토르가 태어나던 그날
손에 피가 나도록 새끼줄로 연마하고
망치로 두드려 편 자리가 남아있는
기판덮개를 쏘아보고 또 쏘아보시며
수령님 마음 아꼈던가 기쁘셨던가
-우리가 만든 첫 트랙토르를
《천리마》호라고 이름지으시다

그날부터 인민은
수령님 태워주신 천리마에 올라
시대를 주름잡았다
락후한 농업국가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공업화의 대문을 단숨에 열어제긴
주체공업국가 조선의 새 력사가
펼쳐졌나니

우리 오늘도 생생히 기억하노라
천리마시대의 경사들
40여일만에 《승리 58》형자동차
5개월사이엔 8만타닝반, 3천t
프레스
《천리마》호굴착기와 《락원 1》
호대형양수차...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믿음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그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낳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준 천리마시대여

우리 가슴에 추억깊이 떠오르노라
우리 기술 우리의 힘으로 만든
첫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 울리
던 그날

수령님도 인민도 함께 기뻐 웃던 그날
전기기관차를 대견히 바라보시며
수령님은 너무도 기쁘시어
주머니속 담배를 꺼내드시었다
-수고했소, 동무들
수고한 동무들에게 한대씩 권
해야지

로동자들이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그들의 손을 잡아 결에 앉히시며
-수상이 권하는것인데 받아야지
자, 어서들 피우라구
격전끝에 담배맛이란 싸움을
해본 사람들만이 알지

아, 그날의 그 담배
담배를 즐기지 않던 우리 수령님
로동자들의 가슴을 더울혀주며
그들에게 권하신 그날의 그 담배
인민에게 주시는 애뜻한 애정
인민에게 주시는 살뜰한 표창

때로 눈동령우에 허물없이 앉으시어
김매던 농민과 나누기도 하고
때로 공장의 기계결에서
기름물든 로동자의 손에도 쥐어
주시며

인민과 나누신 수령님의 담배
그것은 아, 그것은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시며
인민과 나누신
수령님의 마음이고 정이었다

수령님의 인민사랑은
무궁무진하고 무한대한것이였거니
이민위친의 그 토양에 떠받들려
위대한 인민의 대군은 자라고
자주
자립
자위의 억년기둥이 솟아올랐어라

아, 이민위친의 사상
자주의 위력으로
예속의 굴레를 끊어버린 수령님
시대여
사회주의의 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된
시대여

력사는 아직 모른다
인민을 잘 먹이시러 그리도 마음
쓰시며
저택에 시험포전까지 만들어놓고
인민의 행복을 가꾸신분들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구수한 낱알항기에
평생시름이 풀린다 하시던
우리 수령님처럼
그렇게 인민적정속에 한생을
사신분들

세상은 아직 모른다
인민을 잘 입히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눈비에
젖으며
밭이 부르드도록
건설장길을 걷고 또 걸으신분들

무상치로제
무료의무교육제...
지극한 사랑의 정성으로
좁아도 좁아도 끝이 없는
인민적시책들을 법으로 만드시고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
들고 사신
우리 수령님

강성대국에서
인민이 누려가는 모든 복
수령님의 품에서 뿌리내린것이어서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그린다

선군만경 아름다운 내 나라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
높을수록
인민의 천만복이 커만 갈수록
부모를 그리는 자식의 마음처럼
인민은 수령님을 그리워하거니

인민은 웃었노라 잊지 못하노라
수령님
주머니속에 늘 가지고다니시던
물온도계
그이의 승용차에 늘 있던 농뿔모
생애의 마지막까지 인민에게
숨겨두신
그 지평이를...

이 세상 가장 위대한인분 우리
수령님
이 세상 다시 없을 인민의 아버지
우리 수령님
장군님은 목메이시며
수령님 그리며 사는 우리 인민에게
수령님의 평생년월을 꽃피워주시거니

장군님의 손길아래 펼쳐진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이 말하랴
대계도간식지며 한드레벨의 지평선
자연로프식미루벌목질이 말하랴
영원발전소며 멋쟁이이그공장들
그 이름도 회한한 타조거리
인민의 보금자리 만수대거려
말하랴

우리 수령님의 평생의 뜻
수령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이루어가시는 강성대국
꽃피어나는 인민의 행복을 보시며
우리 장군님은 말씀하시다
-우리 수령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2

나는 지금
CNC의 기계바다 펼쳐진
공장의 구내에 서있노라

공장의 구내에도 지평선이 있는가
눈뿌리 아득히 저 끝까지
CNC기계의 행렬 오선지를 그은듯
호르롭게 울리는 동음소리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듯싶구나

CNC!
인민이 사랑하고
조국 자랑하는 우리 식 CNC기계
강성대국의 리상을 꽃피우던
나날에
사건들은 인연맺은
우리 장군님의 정다운 《구원친구》야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가시는
장군님의 넓이 깃들여선가
너의 동음소리 가슴을 흔드누나

몇천째 기대이더나
시련의 그 나날 우리 장군님과
첫 상면을 했던 복판은 기계는
인민의 마음담아 우리 장군님께
합을 드렸던 그 기계는

아버지수령님을 잃은 슬픔으로
하늘도 피눈물의 비를 뿌리던
그 나날
기계공업의 CNC화를 위해
자력갱생의 심장
파란기둥의 승계를 안겨주시며
현지도도의 길을 이으시던 장군님
어느 한 공장에서
우리의 첫 CNC기계를 알아보시었다

소문없이 소문도 없이
세界的 패권을 틀어쥐는
기계를 만들어낸 공장사람들
너무도 대견하시어
그이는 오레도록 걸을 못매셨나니

선군의 기치높이
주체공업의 명맥을 틀어쥐고나가
는것만이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길
인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길
이기에
장군님 그토록 기다려오신 우리 식
CNC기계

우리의 CNC기계
그것은
인민생활향상의 기적의 불씨
단계에 최첨단을 날아넘을 선군
천리마의 발굽

나라가 시련을 겪고있는 때에
당을 믿고 침탄을 돌파했다고
인민이 리상하는 강성대국을 위하여
정말 큰일을 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애국자라고
하실 때
그이 눈가에 고이던 뜨거운 이슬이여
오늘도 인민의 가슴을 적어주누나

그날부터
한대의 CNC기계에서 타고르던
애국의 불씨는
은 나라 공장마다 불길로 타번졌다
강성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그으며
장군님령도의 자욱자욱마다
CNC회공장의 숲이 일떠섰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
였으리
얼음장판으로 강물이 흐르듯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속에서
선군의 보검을 높이 든 조선이
최첨단의 명마루로 힘차게 돌진하며
변영의 세 력사를 펼치고있을줄

그렇다, 선군은
장군님의 선군은

이 나라 공장들에 침탄들과의 피로
곱이치며
인민을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이끌어준
합없이 위대한 선군
대없이 고마운 선군

아침에 깨어나 하는
첫 생각도 인민이고
잠에 들 때에도 인민생각
꿈에서도 인민밖에 모르시는분
그래서 자신의 한생을 쥐어짜면
인민이란 두글자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이

말해다오, 12월의 눈보라여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 지켜주시러
우리 장군님 강선을 찾으셨던 그날
그날에 태어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강성대국력사에 길이 남으려나

그날
강선로동계급이 만든 자력갱생의
창조물
세계최첨단의 초고전력전기기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이
로동자식당에 들리시어 안색을
호리살같이야

로동자식당의 온도가 너무 차다고
일군들을 엄하게 질책하신 장군님
로동자들에게 사죄하라고 하셨거니
사람들이여
초고전력전기기의 온도가 얼마인
가 묻지 말라
로동계급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이
사나운 겨울을 녹이고 강철을 녹
였어라

그날
강선의 로동계급은 모였다
장군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천리마고향의 후손들
이라 하랴
장군님 주신 믿음 대고조로 받들
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강성대국의 주인들이
라 하랴

그날
강선의 로동계급은 심장이 불려
주는 그대로
은 나라에 편지를 썼다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만
흘리지 말고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수령님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이 땅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기하시라

아, 생각하면 가슴뜨거워라
다른 나라 로동자들이 모이면
생존을 위한 항의와 파업이건만
이 나라 로동자들이 모이면
장군님께 일감을 더 많이 달라는
애국의 열망!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을 바라는
간절한 축원!

인민의 가슴마다에
우리가 믿을것은
총대우에 담보된
자립의 신조뿐이라고 하시며
시련을 이겨나갈
불굴의 정신력을 심어주시고
기울여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인민은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락관의 투사
열렬한 애국자
창조와 건설의 능수로 자라났어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노래를 부르며
인민은 영웅적위훈을 창조해가고
장군님은 인민을 그리며
대소환강행군
삼북철강행군
초강대강행군을 이어가시는
그 헌신의 분분초초로 조국의 시
간은 흘렀다

신념과 의리로 뿌리내린 나무는
시련의 폭풍우속에서
더 높이 키를 솟구치며 열매맺는 법
-우리 장군님과 끝까지 뜻을
같이하사!

시장의 웨질높이 난판을 짓몽개
버리며
강계정진
성강의 봉화
태천의 기상
회춘속도가 나빠지는 화족속에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력사가 흘렀다

고생많은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게 하는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시며
인민이 복을 누릴수만 있다면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다 하시는
장군님

오직 인민만을 믿고
언제나 인민들을 찾아
한평생 련차를 집으로 삼고
현지도도의 길에 사시는 우리 장군님

우리 인민에게
사랑하는 말이 있어라
우리 인민이
격정에 목메이는 말이 있어라

그것은
우리 장군님의 현지도도!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
인민의 가슴에 불멸의 사진으로
새겨진
우리 장군님의 현지도도!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

최전열까지 나오시어
병사들이 입은 솜옷
손심발의 두리마도 눌러보시며
그들의 귀속말로 들어주시고
그들의 웃음까지 들어주시어
지하수가 줄줄이 흘러내리고
고압선이 뿔어간 굴속으로
서슴없이 들어가시는 장군님의
현지도도

세계여, 말해보라
이 세상 그 어느 령도자가
그 어느 최고사령관이
석수를 맞으며 위험한 천길땅속
까지 들어가
마지막로동자까지 만났적이 있었던가
로동자들에게 사죄하라고 하셨거니
사람들이여

인민이 사는 곳
인민이 일하는 곳이라면
하늘끝에라도 가시는분
그이는 오직 한분
수령님과 똑같은 우리 장군님
뿐이시거니

농장벌을 찾으시어서는
택약벌의 눈동령우에 오레도록
서시어
농민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고
공장을 찾으시어서는
로동자들의 소박한 공연에도
눈물을 지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아, 장군님의 현지도도

그것은 인민과 한몸이 되는것
그것은 인민에게 기적을 낳게 하는것

장군님의 현지도도
그것은 그 어떤 정예예술이 아닌
가장 위대한 인간
인민의 아버지이신
제절에 배인 생활방식, 생활습관
아, 우리 장군님의 발자취 다 이어
놓으면
이 지구를 몇백번 감고감으리

장군님은 연설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정치를 하시신분
아는한 세계가 아니라
인민이 살고
인민이 투쟁하는 현실속에서
인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
으로 삼으시며
고결한 인민사랑으로 나라를
이끄시신분

노래도 인민이 좋아해야
명곡이라고 하고
인민이 사랑하고 지향하는것만이
바로 진리이고
진정한 사회주의적인것이라고
하시신분

하기에
장군님을 뵈으면
평범한 농민도 농민영웅이 되고
평범한 로동자도 불굴의 투사가 된다
평범한 기술자도 최첨단을 돌파
해간다

장군님 초소를 찾으시면
직전에 정일봉의 우뚝가 울고
장군님 공장을 찾으시면
잔흔을 부르는 공장이 되고
장군님 농장을 찾으시면
쌀독이 넘쳐나는 농장이 된다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이 력사 그자체이려면
장군님의 현지도도력사
그것은
조국의 부강번영의 력사!
인민의 부귀영화의 력사!
장군님의 기복한 한평생!

정녕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선군시대에 창조한 모든 기적들
그것은 어느것이냐
위대한 김정일시대
일심단결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지거니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우리 장군님의 정치는
성강을 주체철의 기항으로 만들었고
락원파 대안, 홍남파 북중, 대흥...
이 땅을 통틀어
강성대국의 리상촌으로 전변시켰어라

어떤 시련속에서도
오직 당을 믿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한
인민이 그리도 대견하시어
자신의 명의로 평양으로 초청하시고
세상에 없는 초보외회를 펼쳐주신
장군님

아름다와라
황홀하여라
위대한 선군시대에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강산어는 바다로 나간다
우리의 주체철은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의 핵위력은 지축을 뒤흔든다

장군님이시야말로 인민대중에게
아직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지 못한
천만가지 행복을 다 주시고
그 행복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하시신분

력사에는 령도자가 많아도
인민으로부터

전인류로부터
태양으로
어버이로
그렇게도 진심으로 열렬하게
칭송받는 위인은 우리 장군님뿐
이시거니

시대의 요구 인류의 지학을
한몸에 안고 인도하시는
거인중의 거인
위인중의 위인 우리 장군님
자주시대 주체시대를
진리의 등대로 인류앞에 높이 세우
시켰어라

그 어떤 압력이나 유혹도
우리 수령님 민러에서 세워주시고
우리 장군님 피눈물의 바다에서
이루어낸
우리의 부강번영을 흔들수 없으리

자주, 자립, 자위를
생명으로 하는 위대한 국가
자주적대, 애국의 립장
세계를 압도하며 나빠지는 기상
그 누구도 꺾을수도 막을수도 없으리
이 궁지와 존엄을 인민은 끝까지
지켜가리니

일심단결의 독점국 조선은
정신력의 포화로 적진을 무너뜨리며
김일성민족의 자존심을
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우리 당
김일성조선을 만방에 떨쳐가리라
이 조선의 무게 지구보다 무겁다!

쌀폭포
비단폭포
달알폭포
사랑폭포...
인민이 누릴 천만가지 행복의 폭포
소리치며 잘 살 날이 눈앞에 펼쳐
졌다!

내 나라는
수령복의 나라
우리 인민은
수령복을 받은 인민

내 작은 붓으로 어찌 다 노래할수
있으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이 땅에 불패의 강성대국을 일떠
세우신

위대한 수령의 불멸의 업적을
위대한 수령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을
그렇다
가버린 세기에도
다가올 세기에도 영원히 없으리라
수령복 넘치는 위대한 내 나라
대대로 수령복을 누려가는 복받은
우리 인민
인류가 영원히 부러워할 인민만세
의 리상향!

아,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은
위대한 수령복을 노래하노라!

3

2월의 이 아침
우리 장군님 탄생하신
경사로운 날이 오니
못건더게 그리워라 우리 어머니
새월이 갈수록
가슴사무치게 고평마와지는
김정숙어머니

대대로
위대한 수령복을 누리는 인민의
마음속에
수령복사용위의 화신으로 사시며
수령복을 어떻게 빛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시는 김정숙어머니

부피두터운 책 쓰신적 없고
자신을 내세우신적 한번 없으셨건만
참된 혁명가의 인생의 가치를
피어린 자욱자욱으로
승고한 실천으로 보여주시었어라

세월의 언덕너머 오늘도 보여오누나
혁명의 위기마다
위기일발의 순간마다
사명관동지! -를 웨치시며
수령복사용위의 성벽이 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해방된 조국땅에서도
변함없는 한 모습으로
평생을 인민과 위업을 받드시며
어느 하루 한시도
수령님의 높으신 부인으로서가 아닌
수령님의 평범한 전사로서만 사시
었나니

수령용위의 총대는
손이 아니라 심장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시며
수령복사용위,
그것은 곧 인민운명의 수호라는
혁명의 철리를 밝혀주신 어머니
교대없는 경위대원으로 사시며
한발에 멀리서 울린 총소리에
비호같이 달려나오신 어머니
한손에는 쌍창을
또 한손에는 불뿔처럼 드시고
해방산기슭을 돌고도실 때
어머니의 치마폭을 가득히 적시
던 밤이슬은

격정에 젖은 인민의 눈물이 아니
었던가

어머니와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총정의
그 이야기들

박달나무도 얼어러지는 백두의
흑한속에서
수령님의 젖은 옷 가슴에 품어
달리워드리던 항일의 전장

수령님의 사색을 지켜드리던 그
날의 장대
한들두름 축원의 마음 수놓으시던
못잊을 이불
병석에서 보아주신 《민주청년》
신문의 그 기사
수령님을 비레워드리시던 순결한
그 마지막웃음...

아, 그 모든 이야기들
쌓으면 하늘에 닿으리
피내도 피내도 끝이 없는 바다
가 되리

정녕 어머니의 한생은
수령복사용위의 천위전사
수령의 혁명사용위의 제일기사
수령의 위업 관철의 제일투사
수령의 가장 존중한 보좌관
훌륭한 조연자의 한생이었나니

수령님을 받들신
어머니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이 있음은
심장으로 걸맞으며 인민은
다함없는 고마움과 그리움을 안고
어머니를 삶의 거울로 비쳐보며
사나니

아, 그리워라 김정숙어머니
장군님을 위대한 태양으로 받들어
울리시고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어느 어머니도 줄수 없는
위대한 행복을 안겨주시었던만
영원히 풀결없는 그리움을 남기신
어머니

어머님께 있어 장군님은
자신의 아드님이기에 앞서
백찌산의 아들
인민의 아들
조국의 아들이시었다

항일의 포연내배인 군복자락에
어리신 장군님을 감싸안으시고
항일의 전장을 누비시며
장군님 첫걸음마 떼시던 그때 벌써
총대와의 인연맺어주신 어머니

어리신 장군님의 손에
총을 쥐어주시며
혁명가는 눈시울이 아니라
사상으로 먼 앞날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수령님처럼 인민의 장군
훌륭한 장군이 되라 하시던 어머니

총이자 혁명이라는 진리를 새겨
주시며
지어주시신 웃도 백두의 풀물오른
장군복
군복은 잃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
하다고

이 군복을 입고
나라를 튼튼히 지켜야 한다고
하시던 어머니

아, 정녕
장군님께 있어서 어머니는
혁명의 어머니
자애로운 스승이시였거니

저 멀리 백두산명령에서
한자두자 우리 글을 익혀주시고
은은피던 해방산의 그 저녁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배워주시던
어머니로부터 장군님은
수령의 전사로서의 삶을 시작하
시었고

어머니를 따라
평양제사공장을 다녀오신 그날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머리맡에서
깨진 양말을 기워주시던
어머니의 그 모습 우러르시며
인민행복의 창조자의 뜻을 안으
시었거니

백두의 넋을 심어주시고
인민적성품을 심어주시며
누리를 밝히는 빛나는 태양이 되라
하시던
어머니의 고결한 뜻 승고한
그 사랑

장군님 가슴속에
마를줄 모르는 썬과도 같이
수령님의 안녕과 위업을 받드시며
어느 하루 한시도
수령님의 높으신 부인으로서가 아닌
수령님의 평범한 전사로서만 사시
셨나니

수령용위의 총대는
손이 아니라 심장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시며
수령복사용위,
그것은 곧 인민운명의 수호라는
혁명의 철리를 밝혀주신 어머니
교대없는 경위대원으로 사시며
한발에 멀리서 울린 총소리에
비호같이 달려나오신 어머니
한손에는 쌍창을
또 한손에는 불뿔처럼 드시고
해방산기슭을 돌고도실 때
어머니의 치마폭을 가득히 적시
던 밤이슬은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16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당장건기념탑, 주체사상탑, 4.25문화회관광장을 비롯한 평양의 무도회장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신군혁명명도파라 강성대국건설에서 청춘의 위훈을 펼쳐가는 자랑스러운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기쁨과 환희로 설레고있었다. 절세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 차넘치는 수도의 하늘가에 《축원의 꽃다발 드리오시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도회들이 시작되었다. 청년학생들은 절실적인 별저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 오시어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자욱을 끊임없이 새겨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흥도의 마음을 안고 아름다운 춤출동을 펼쳐나갔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 등의 노래들에 맞추어 춤출동을 일으켜가는 무도회참가자들의 열광마음에는 독창적인

신군혁명명도로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정과 절제위인을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청년학생들은 불면불휴의 헌신지도강행군으로 인민의 행복을 쫓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전하는 《통에 번쳐 서에 번쳐 뻗어 산산이로다》, 《변이 나는 내 나라》의 노래에 마음을 합치며 춤을 추고 또 추었다. 당의 품속에서 혁명의 계승자, 혁신의 창조자로 역세에 자라나며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사회주의수호, 조국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청년학생들의 열정의 분출인양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전선에서 만나다》를 비롯한 노래들이 힘있게 울려 퍼져 무도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무도회참가자들은 《돌파하라 최첨단들》, 《더 높이 더 빨리》

《축배를 들자》 등의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며 당의 명도파라 오늘날의 총공격전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갈 결의를 굳게 다지었다.

이날 해산, 신의주, 사리원, 함흥을 비롯한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2월의 명절에 펼쳐진 청년

학생들의 경축무도회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배두림에서 시작된 신군혁명전진기개를 끝까지 이어갈 청년전위들의 혁명적신념과 전투적기상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 당 장건기념탑 광장에서 —

2.16 경축 공연

중앙과 지방의 극장들에서 진행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16일 중앙과 지방의 극장들에서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들에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명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신군조선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흥도의 정과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가는 자랑스러운 인민의 기쁨과 환희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은 모란봉극장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피아노협주곡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관현악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시다》, 《정일봉의 우리소리》, 《모란봉》, 피치카토를 위한 현악합주 《이 강산 하도 좋아》 등의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출연자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절실적인 별저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무비의 당력과 배장으로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빛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혁명적열정이 넘치는 공연은 온 장내를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민족정기와 자부심, 위대한 헌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휩싸이게 하였다.

국립민중예술단의 종합공연은 청년중앙회관에서, 윤이상 음악연구소 관현악단 예술인들의 음악회는 윤이상음악당에서 열렸다. 여성합창 《2월은 봄입니다》, 바이올린독주를 위한 첼로제주 《장군님 따르는 마음》, 첼로제주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녀성3중창 《신군조선 용해야》를 비롯한 중독들에서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신의와 장군님의 명도파라 혁명의 전세대를 이 발휘하였던 정신력으로 울려퍼지는 총공세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기풍을 잘 형상화하였다.

평양교극극장에서 진행된 체력교예 《탄력회화》, 《중심공제주》, 풍물교예 《다각비행》, 동물교예 《곰출렁기》 등은 명절을 행복과 기쁨속에 보내

는 수도시민들에게 광만과 희열을 안겨주었다. 이날 함경북도, 평안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각 도예술극장에서도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공연무대들에는 녀성독창 《정일봉의 봄빛이》, 무용 《주체철이 흐르다》, 가무 《춘마 처녀》, 녀성독창 《변이 나는 내 나라》, 혼성중창 《전선에서 만나다》, 합창과 무용 《돌파하라 최첨단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들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울려퍼지는 총공세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받들고 전투장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창조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할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경축공연들은 대를 이어 수명복, 장군복을 누리는 민족의 행복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신군혁명명도파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대국을 기어 이 일떠세우자말라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산원에 둘러진 크나큰 은성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평양산원이 또다시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았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얼마 전 근 8에 달하는 산물을 산원에 보내주시었다. 친안근이 위대한 장군님의 안양을 바라며 삼가 올린 산물을 고스란히 받아안은 산물들은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매단가는 어머니장군님의 뜨거운 은성속에 산물들이 받아안은 왕벚꽃과 꿩알이꽃, 삼지구엽초꽃, 오미자꽃을 비롯한 귀한 꽃보약과 고려약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평양산원이 개원된 후 지금까지 50여차례 걸쳐 수많은 꽃보약과 고려약들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만민을 감동시키며 길이 전해지고 있다. 세쌍둥이입신부들에 대한 당의 은정속에 입신치료를 받고 있는 청진시의 고은심녀성은 자기들처럼 행복한 녀성들은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아비지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물리었다. 해주시의 정옥주녀성은 평범한 노동자인 자기 최신식별비들을 그뿐치 갖춘 산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것만도 품만 같은 일인데 이렇게 산물까지 받았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떠세우신 평양산원이야말로 우리 녀성들의 《친정집》이라고 말하였다. 의료일군들도 온 나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축원을 받으셔야 할 뜻있는 2월에 산물들을 위하여 많은 산물을 보내주신 어머니장군님의 은덕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북받치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꽃피는 사랑의 노래는 평양산원과 더불어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조선중앙통신】

장자산소년단야영소에서 올해 첫 야영 시작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장자산소년단야영소에서 뜻깊은 올해의 첫 야영이 시작되었다.

전국각지에서 온 소년단원들의 입소식이 16일에 진행되었다. 신호나팔소리가 광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야영기가 개양되었다. 입소식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그들은 야영생활이 집단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지역적 편견을 없애고 민족의 단결을 높여 줄 것이라고 믿고있다. 그들은 야영생활이 집단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지역적 편견을 없애고 민족의 단결을 높여 줄 것이라고 믿고있다. 그들은 야영생활이 집단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지역적 편견을 없애고 민족의 단결을 높여 줄 것이라고 믿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소년들의 훌륭한 과의요양기지로 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든 소년단원들은 야영생활 기간 아버지장군님의 어린시절을 겪기 따라배우며 여러가지 소조활동과 다채로운 체육문화 오락경기를 활발히 벌려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강의한 의지와 튼튼한 체력을 소유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야영생활이 집단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지역적 편견을 없애고 민족의 단결을 높여 줄 것이라고 믿고있다. 그들은 야영생활이 집단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지역적 편견을 없애고 민족의 단결을 높여 줄 것이라고 믿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제19차 《2.16예술상》 개인경연 입선자들의 공연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경축하여 제19차 《2.16 예술상》 개인경연 입선자들의 공연이 15일 윤이상음악당에서 진행되었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공연을 보았다. 녀성교음독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소해교음독주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가시니가》, 그리고 장군님, 피아노독주 《발걸음 노래》, 녀성3중창 《정일봉에 안겨 드림》, 《강선의 노래》, 녀성민요독창 《양산도》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출연자들은 절실적인 별저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수심성

상 조선혁명가를 승리에 이끄시며 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과 그이께 영명도 미례도 다 달고고 끝없이 따르는 친만국민의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을 훌륭히 형상화하였다. 민족의 대룡이여 열린 영광의 그날이 있어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솟구쳐오르는 신군조선의 오늘이 있음을 소리높이 구가한 중독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절세위인의 애국헌신의 정성을 따라 번영의 변이 꽃피고 인민의 리상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것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중해교음독주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가야금독주 《바다의 노래》, 장세남독주 《통가시나리》, 고음저대독주 《새봄이 왔네》를 비롯한 중독들에서 출연자들은 신군시대 문화예술발전과정에 재능있는 예술인재들로 자라나고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도파라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력판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헌탄을 갈고파며 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정신을 잘 반영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해외동포들 꽃바구니 진성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16일 2월의 명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해외동포들이 꽃바구니를 진성하였다. 여기에는 제일본조신인축하단, 제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축하단, 제이동포전국련합회축하단, 제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축하단, 제뉴질랜드동포전국련합회축하단과 재도이원탈동포협회회 회장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해외동포들은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어 주체적의교묘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꽃다발들을 진성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중앙통신】

4 면에서 계속

백두의 군복입은 어머니앞에 야전복차림으로 장군님은 서시였어라 별저산의 아들이 별저산의 어머니께 거수경례를 올리까지 장장 60여년세월이 흘렀음을 인민이여 조국이어 잊지 마시라

울러오누나 우리 마음속에 어머니의 고향을 지척에 두고 어머니의 넘원을 꽃피우시며 회령을 지나가시던 그날의 북행철차의 기적소리 유라시아대륙을 종횡무진하며 조선을 세상에 떨치고 돌아 오시던 그 새벽 두만강에서 울리던 그 기적소리

아, 그날의 그 기적소리 어머니를 부르던 장군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던가 어머니께로 달려가던 장군님의 그 마음이 아니었던가

자나깨나 꿈에도 잊은적 없으신 어머니 이시건만 회령에서 그양은 갈수 없어 강성대국을 앞세우시고 열마진 은과군 강안협동농장을 찾았을 우리는 사회주의선경마을의 최후한 전진앞에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조선기사와는 날아갈듯한 합각지붕을 띠고 열병대 오마냥 정연하게 일떠선 400여동의 화려한 살림집들, 우뚝 솟은 문화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수십동씩 구획을 지어 들어선 조선기사와집마을... 우리가 리소제자 자리잡은 동덕에서 내려다보니 마을들은 마치 드넓은 협동별 꽃밭에서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무리들을 현상케 하였다. 여기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솟아난 자랑많은 《조선기사와집마을》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민족적전통을 잃게 계승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을 살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리소제자마을에 들어선 우리는 살림집들의 지붕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물론한계갈

어머니께로 가신 우리 장군님

어머님은 환히 웃으신다 —장군! 장군의 그 거수경례에 60여년세월의 무게가 실렸거라 장군님도 환히 웃으신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수명복의 넘쳐나고 어머니의 넘쳐나고 이 땅의 강성대국이 되었습시다

아, 장군님과 어머니의 그 웃음속에 온 나라 인민이 웃고 천만년 복락을 누릴 조선의 앞날이 웃었거라 수명복의 안양을 지켜드리시던 어머니처럼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길에 우리 받아안은 수명복의 천년이 있고 수명복의 위업을 받드시던 어머니처럼 장군님의 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조국부강번영의 만민이 있어라

생각할수록 피스러워라 인민은 대대로 수명복을 누리면서도 인민은 수명복과 어머니, 장군님께 단란한 가정의 락 한번

이 하날로 추어올린 지붕날개, 줄을 맞춰 층층 겹쳐오르며 이는 암기와와 수기와, 그것이어 대로 《고향》과 《이랑》이 되어 비물과 눈눈은 물이 쪽쪽 흘러내리게 된 지붕엔, 마루기와를 덮은 지붕마루... 우리 민족의 슬기와 오랜 력사를 그대로 엮을수 있게 하였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전통과 우수한 건축술이 오늘도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는것입니다.》 농장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기사와집마을》이 생겨나게 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몇해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리차례에 걸쳐 강안리에 조선기사와를 이 세 마을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셨다. 그리하여 살림집들은 물론 리인민병원, 유치원, 문화회관이 새로 일떠

마흔드러지 못하였구나

우리 수령님 어머니 우리 장군님 인민을 위한 한생을 바치시면서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행복을 미정으로 남기셨습니

우리 가슴 저리게 하는 수령님의 그 말씀 나에게 한이 있다면 나라일이 바빠서 정말 바빠서 어릴 때 김정일장군를 자주 안아주지 못했것이라고

아, 인민을 위해 주시실 있는 사랑 다 주시면서 언제라도 가정의 락은 생각할수 없은것이 만경대가문의 숙명이었다면

오늘도 귀가에 쟁쟁하여라 우리 수령님 생의 마지막시기에 간곡히 하시던 그 당부 투사들과 마주앉으시어도 —김정일장군를 잘 받들어야 하오 인민군장병들을 만나시어도 —김정일장군이 없으면 조국도 없소 인민들을 만나시어도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더 번영할거요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남기신 어머니 수령님의 유훈중의 유훈이었거니

이날따라 수령님 소신 《광명성찬가》 그 구절구절이 백두의 태고연한 밀림의 설레임처럼 묘향산의 유정한 폭포소리처럼 우리 가슴에 메아리쳐온다

우리 수령님 장군님의 탄생일에 쓰신 뜻을 충신 이 세상에 장군님을 칭송하는 흥도의 송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맑고 아름답다와도 어찌 우리 수령님 남기신 그날의 송사에 비길수 있으랴

수령님 손수 붓을 드시고 송시를 쓰시던 그날 그 순간 수령님의 심중 우리 어찌 다 알랴 수령님 가슴속 그 회화와 감회를 그 누가 재일수 있으랴

백두의 2월에 소백수팔안을 거니시며 김정숙어머니와 부르시던 그날의 《사향가》소리

수령님의 붓끝에 닿았던가 환희의 탄성을 울리며 군복차림을 헤치며 백두의 거목들에 백두평명성 탄생을 새기던 전우들의 모습 종이우에 비꼈던가

수령님의 붓끝에 닿았던가

위인이 쓰신 위인의 송시 2월의 이 아침 어머니장군님을 우러러 온 나라 인민 삼가 축하의 인사드리며

심중으로 합창한다 21세기 인류가 목소리를 합친다

그 목소리 그 합창우에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진 음성이어 우주를 가득 채우며 메아리 치거니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 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나라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선운인가 문무충호 겸비하니 모두다 우리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환결합오 우렁찬 함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기술지식선진설에도 들렀다. 선진설에서는 열기면 토론이 한창이었다. 유기념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제기되는 기술전문체를 놓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농장원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우리는 울려퍼지는 좋은 전망을 그려볼수 있었다.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나서니 환하게 꾸러진 민족놀이장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았다. 울타리는 물론 휴식터, 민속놀이터에 세운 거대한 건물들은 언덕속도 모두 경계현감을 자랑하는 합각지붕을 조선기사와가 띄워져있어 풍치를 더 돋우어 주고있었다. 돌출부속 민족의 긍지가 부풀어올랐다.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성숙을 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과 고결한 민족을 존하는 조선기사와집마을! 바로 이것이 우리 장군님 신군로 마흔드러진 민족의 향취 한껏 풍기는 사회주의선경마을의 최후한 풍치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을을 떠났다. 본사기자 정영철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고있다. —김민유병원에서— 김진명 찍음

